

작품 내용

제 목	만개할
내 용	어두운 나의 밤에 존재했던 환한 불빛과 그 속에 젖힌 나의 꽃, 지독한 외로움의 동료가 되어준 열정의 불씨와 미개(未開)한 나의 열정의 불꽃 눈부시게 만개(滿開) 할 나의 계절을 그리며 세상에 내 꽃을 보여주었건만 그들이 내 꽃을 흠쳤지 그들의 손가락으로 내 계절을 흠쳤지 그들의 꽃은 만개(滿開) 해버렸지, 내 가슴에는 탄식의 재만 남았는데 저 건너편에서는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빼앗긴 불로 지은 밥 냄새가 시리도록 따뜻하게 풍겨 오네 그대들, 기꺼이 잔치를 즐기시길 장물(贓物)로 핀 꽃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일 것이니, 아아 이것이 필연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?